# 광주 시민, 기후위기 경각심 높아졌지만 실천 의지는 낮아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탄소중립 생활실천도 조사·활성화 방안' 발표 심각성 인식은 상승, 관심도·동참 의향은 하락…장기적 구조개선 필요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은 높아졌지만, 실제 행동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탄소중립 실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참여 유도책이 필요하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달 30일 발표한 '광주시 탄소중립 생활실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민들의 기 후변화 심각성 인식도는 1차 조사(2023년)에 비해 2.55점 상승한 반면, 기후변화 관심도는 2.65점, 탄소중립 정책 동참 의향은 5.05점 하락

특히 미래 기후환경 변화 인식도는 15.3점이나 급감했다. 해당 조사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 생활 실천 수준, 실천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기후환경 변화 인식도는 25년 후 미래 기후환경에 대한 전망을 측정한 지표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진흥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가 광주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낙관 속에 실질적인정책 참여 의지는 약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

실제 시민들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도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정체되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종합 실천도는 66.05점으로 3.95점 상승했지만, 이는 지난 조사 대비 9.99점이 상승한 '수송 분야(77.37점)'의 비약적 향상 덕분이다. 광주시가추진한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 정책이시민 행동에 영향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흡수원(나무심기·도시숲 관리 등) 분야는 48.22점으로 전 분야 중 최저, 에너지 분야 역시 65.57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실천 가능한 소소한 항

목에는 응하지만, 비용과 시간, 전문성 등이 요 구되는 실천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실천 의향 항목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향은 80.4%로 여전히 높지 만, 실제 보유율은 5.2%에 불과했다.

태양광 설치 의향은 77.4%에 달했지만 실제 설치 가구는 8.0%뿐이었다. 시민들의 실천 의지는 높지만, 초기 비용 부담과 구조적 제약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20~30대 청년층의 탄소중립 실천도는 각각 57.10점, 59.06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은 세대임에도 실천의지는 평균 이하로 나타나,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홍보 전략과 실천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관계자는 "저비용·단기 실천 항목은 잘 이행되고 있지만, 장기적 구조 개 선이 필요한 영역에선 여전히 실천 장벽이 높다" 며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플랫 폼 기반의 참여 유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김진아기자 jinggi@kwang.co.kr



광주시 광산구 주민이 건강 약자를 대상으로 이용료 1000원에 병원 동행을 해 주는 '천원병원동행' 서 비스를 이용해 병원으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제공〉

#### "नोनोठीनो भोठ

#### "건강약자 병원 교통비 1000원으로 이용하세요"

광산구 '천원병원동행' 서비스…광주시 전역·화순전대병원 한정

광주시 광산구 1일부터 건강 약자 병원 동행 서 비스의 교통비를 1000원으로 이용하는 '천원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원 더가치 프로젝트' 중 하나다.

천원병원동행 서비스는 이용 금액을 1000원으로 인하해 건강 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동행 지원과 건강관리도 돕는다. 또한 광산구는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동 지원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를추가 확보했다.

이용 가능 지역은 광주시 전역과 시외는 화순전 남대병원으로 한정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동행 지원), 새빛콜 등 기존 돌봄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블런스 센터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한편 휴블런스(휴먼+앰뷸런스)는 광산구 특화 사업으로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 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건강 약자를 위한 서비스 다. 동행 매니저가 병원 진료, 검진 및 약국 이용 등 전 과정을 함께 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청사에너지에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한다

환경부 '상생 협력 실증 프로그램' 선정…UBESS 구축 실증 사업 추진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진흥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청사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1일 진흥원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 '2025년 상생 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모에 최종 선정돼 신재생 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UBESS) 구축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11억원(국비 7억 7000 만원·민간 부담금 3억3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해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청사 옥상에 구축한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주요 내용은 '전기차 사용 후 폐배터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사용 후 폐배터 리의 안전성 평가 및 재자원화 설비 실증', '이미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연계한 300kWh급 폐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구축', 'ESS 화재 예방을 위한 액침 냉각 화재 안전 솔루션 실증',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등이다.

진흥원은 24시간 7일 내내 모든 소비 전력의 100%를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터 공급된 전기를 사용하는 '24/7 CFE' 청사를 실현하는 전축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으로 진흥원은 연간 온실가스 45.9% 유해물질 발생량 43.8%, 폐기물 30% 절감 등의 환경적 효과를 기대하고 에너지 비용 또한 연간 10%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함평 북성천·고흥 강산천·여수 연등천 하구 수생태계 '최악'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공개

함평군에 있는 북성천을 비롯해 고흥군, 여수시 등지의 강 하구에서 수생물 생태계가 무너진 사례 가 잇따라 발견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전국 하구 수생태 계 건강성 지도'를 통해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전국 325개 강 하구의 668개 지점에서 생물측정망을 기반으로 조사한 수생태계 정보를 행정구역별로 나눠 지도 형태로 최근 공개했다.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및 수변식생 등 주요 생물상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생 대계의 건강성을 A부터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다.

A등급에 가까울수록 수생태계가 건강해 다양

한 생물군이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E등급에 가까울수록 일부 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등 생 태계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의 경우 총 76개의 하구가 분포해 있으며, 유형별로는 열린하구 42개 하구, 90개 지점, 닫힌 하구 34개 하구가 있다.

이 중 여수시 연등천, 고흥군 강산천, 북성천 하 구에서 수생태계 건강성이 낮게 평가됐다.

함평군 북성천은 부착돌말류의 수생태계 건강 성이 최하 등급인 E등급(매우 나쁨)이었으며, 수 변식생은 D등급(나쁨),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과 어류는 C등급(보통)이었다.

고흥군 강산천은 부착돌말류와 저서성대형무척 추동물 모두 E등급을 받았으며, 여수시 연등천은 수변식생 E등급, 부착돌말류 D등급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남 지역의 건강성이 나쁜 하구의 경우 담수와 해수 간 연결성이 양호하지 못 하거나 상류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도 심형 하구와 하구의 제방이 인위적인 대규모 석축 으로 구성되고, 수심이 매우 깊은 탓에 다양한 종 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분 성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의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구는 바다와 강을 오가며 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이번에 지도발간을 계기 삼아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위한 정책이 지속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계림1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소' 운영…신속·맞춤 지원

광주시 동구 계림1동은 지난 30일 계림동 그랜 드센트럴아파트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소'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소는 매월 관내 경로 당, 푸른개미다락을 순회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 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건강 상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상담 창구다.

상담소는 동구보건소, 동구치매안심센터,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업으로 운영됐다. '동구랑 건강체조' 시연, 건강검진(혈당·혈압 측정, 치매· 우울 검사)과 기초생활보장, 의료, 돌봄, 주거 등 맞축형 복지 서비스 상담을 제공했다.

이어 상담소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복지사각지 대 발굴을 위한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앱'을 안내 하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렸다.

김대현 계림1동장은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 소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 게 지원받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ggi@kwangju.co.kr

